

山地草地造成을 위한 林野地の 諸特性*

P. Weinberger

한독초지사업기구(통역: 축산시험장 이기종 연구관)

丘陵地 및 山岳地의 草地開發을 爲한 基礎資料를 얻고자 한국의 林野地를 調査하였다. 本 調査를 위하여 全國土를 284個 標本 조사지역의 土壤分析이 이루어졌다. 本 調査結果를 오늘 간추려 報告드리며 더불어 論議하고자 한다.

林野地의 有機物 含量은 林野地의 침식정도 뿐만 아니라 土壤肥沃도를 평가하는 한 중요한 지칭이다. 조사도는 임야지의 有機物 含量이 대체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東北部 地方의 몇몇 지역은 有機物 含量이 높았는데 이는 人口가 소밀하고 林木伐採가 적었던 山地特性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유기물 含量은 제주도 토양에서 보이는데 이는 火山灰土壤 特性에 기인된 것이다.

이러한 諸特性을 觀察하여 볼 때 한국의 林野地는 원래 매우 풍부한 自然植生을 가졌었으나 現在와 같은 土壤肥沃도가 下落된 傾向은 過多한 伐木의 結果로 보인다. 草地造成 利用은 一般 肥沃度特性 改良 特히 유기물 含量 增加를 위한 적절한 방편이다.

林野地의 磷酸含量은 토양분석 결과에 나타난 어느 다른 특성보다 가장 나쁜 제한 요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인산함량은 기술한 유기물 含量 조사에 나타난 특성과 비슷한 傾向을 보였고 제주도와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다소 높은 傾向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상술한 바와같이 北東部地域의 다소 적은 侵蝕 피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의 높은 磷酸 含量은 火山灰土壤이 다소 높은 인산 흡착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 토양의 높은 P함량은 植物이 吸收 利用할 수 있는 有效 P_2O_5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여 드리는 도식은 조사지역내에서의 磷酸含量과 자라는 自然植生の 種類나 數와의 相互關係를 보여준다. 이러한 두 特性은 토양의 침식정도에 따른 이들 특성이 影響을 받았기 때문에 相互關係가 成立된다.

林野地의 가리 함량은 진술한 다른 영양소의 조건보다 분명히 낮게 나타났을 뿐이다. 대부분의 임야지 토양에서는 K의 적합한 施肥로 쉽게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